

## 종교, '不信의 늪'에 빠지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5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한국 종교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종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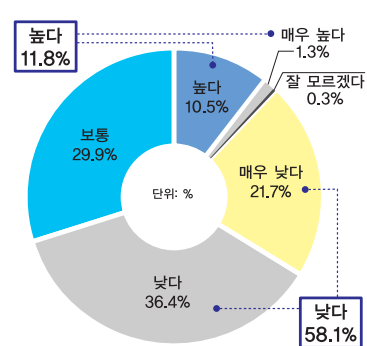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0월 29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감소했다. 한국사회 기관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가장 신뢰한 곳은 의료계(21.9%)였고, 시민사회(21.5%), 금융기관(20.5%), 학계(17.8%)가 뒤를 이었다. 종교계의 신뢰도는 11.8%로 대기업(12.4%)보다도 낮았다. 이 같은 종교계의 신뢰도는 지난해 조사한 신뢰도 25.0%보다 13%가량 하락한 것이어서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3대 종교별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가톨릭을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39.8%로 가장 높았고, 불교는 32.8%, 개신교는 10.2%였다.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신부가 51.3%로 가장 높았고, 스님은 38.7%, 목사는 17%였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40.4%로 '감소했다'(19.4%)보다 많았다.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42.3%로 영향력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천주교는 36.3%, 불교는 26.7%였다.

신뢰도에서 특이할만한 한 점은 연

〈표1〉 종교 전반 신뢰도



신뢰도 25%에서 11.8% '추락'  
종교 영향력 높은 기형구조  
연령·소득 낮을수록 불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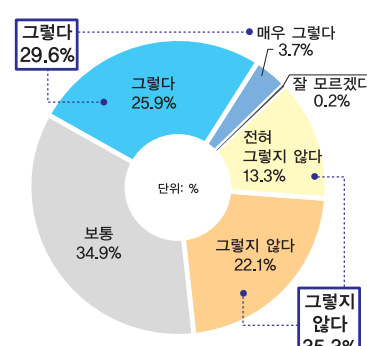
"사회의 낮은 곳을 위해  
종교 본연 의무 돌아봐야"

령과 소득이 낮을수록 종교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20대의 종교 신뢰도는 8.4%, 30대는 6%에 그쳤다. 저소득층은 8.7%만이 종교를 신뢰했고, 중산층은 10.1%, 상위층은 25%로 신뢰도가 높아졌다.

또한 불교에 대해 인식에 대해 국민들은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위로한다(37.8%)'는 데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재정 투명화는 13.3%로 여전히 응답률이 낮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윤승용 한국 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소위 제도권 종교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표2〉 성직자 전반 신뢰도



면서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제도권 종교가 가지는 권력과 영향력에 거부감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연령이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종교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면서 "한국 종교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한국 종교는 중산층 이상의 종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전반적으로 종교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고 그런 와중 가톨릭과 불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가톨릭 주교회의 내에서는 정책을 정할 때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논의한다. 한국불교는 그런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한국불교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월 24~25일 중국 무석 영산법궁에서 제4차 세계불교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 대만, 스리랑카, 미국 등 10개국 불교 지도자들은 '세계불교단체 유대 강화' 등을 비롯한 9개항을 공동 선언했다. 사진은 한국 대표단 스님들이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 "세계 불교도 교류 통해 유대 강화"

10월 24~25일 중무석서 4차 세계불교포럼 열려

"각 국의 불교 사상과 문화, 전통, 학술 등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자."

10월 24~25일 중국 무석 영산법궁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포럼에서 한국, 대만, 스리랑카, 미국 등 10개국 불교 지도자들은 '세계불교단체 유대 강화' 등을 비롯한 9개항을 공동 선언하며 폐막했다.

25일 진행된 폐막식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은 "전 세계 다양한 문명과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스님들은 △각국 불교신자들의 교류 강화를 통한 이해 증진 △각종 언어의 불교서적 비교연구 및 불교사상 교류 △서로 간 문화와 전

통을 이해하고 역사적 경험 공유 △교육분야 협력을 통한 불교학자 파견 및 불교대학교 교류 △불법홍포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한 불교사상 세계 전파 △환경보호 및 다국적인 공익분야 활동 △불교청년 교류 지원 등을 통한 흥법인재 양성 △문화예술·평화유지 등 인류문명공동체 건설 노력 △불교 및 현대과학 간의 융합 강화 등 9개항을 공동 발표했다.

한편 24일 개막식에서 대회 발언

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여기 모인 불제자들은 모두 각국이 처한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지만 각국에 불법이 전해진 동기와 역사 등에 따라 불교가 계승·발전된 것"이라며 "근원이 다른 지류가 분류에 합쳐지듯 각국의 수행전통과 역사의 차이를 뛰어넘어 부처님 가르침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50여 개국 400여 명의 스님들이 초청돼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는 9개 종단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대행 선사 가르침, 유럽서도 큰 공감대 형성"

獨 애플레 교수, 10월 23일 한마음학술제서 밝혀

"대행 선사의 불교적 가르침의 전파가 지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서 종교가 그 의미를 잃게 된 문화사적 배경에 대한 인식부터 아는 것이 필요하다."

10월 23일 한마음선원 한마음과 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마음학술제'에서 한스욱 애플레 베를린 의과대학 교수는 "대행선사가 서쪽으로 간 까닭"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애플레 교수는 이러한 세속화의 요인으로 △종교개혁을 통한 교회에 대한 비판 △세계주의에 따른 이성과 개인에 대한 강조 △유대인 대학살서 드러난 인간성 패배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통한 무신론의 각인 △과학과 기술과학의 급격한 발전 등 5가지를 꼽았다.

이어 애플레 교수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초종교적이

다. 큰 스님 가르침의 탁월한 명료함은 문장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심오한 개인적 경험이라는 양분을 섭취함으로써 비롯된다"며 "여기에 신

대행 선사 가르침 초종교적 모든 종교 본질적 핵심 담겨 '한마음공생과정실천' 효과 참가자 80%이상 만족 높아

의 질서에서 떨어져 나온 유럽인들을 위한 엄청난 희망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레 교수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자신 속에서 전제로 통하는 문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며 "전체와의 연결

속에서는 세계를 대상화해 바라보는 태도가 지양되며, 모든 종교의 본질적 핵심을 지향함으로써 유럽인들에게도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경옥 원광디지털대 교수와 이용권 박사(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한마음공생실천과정'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발표 결과도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 동기는 '한마음법의 이해와 실천'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문제 23.6%, 인간관계문제 13.6%, 경제문제 11.5%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도 45.8%가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50% 정도가 33.2%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는 '주인공에 대한 이해'와 '민고 말하기', '지켜보기', '들러 보지 않기'로 확인됐다. 이는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의 주요 내용이 유용

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이경옥 교수는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학술제에서는 김영래 연구교수(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가 '대행선사의 주인공 수행관과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비교 연구'를, 박만규 동덕여대 교수가 '육조단경 해능 선법과 대행선사상 연구'를, 청고 스님(한마음국제문화원)이 '80년대 한국 불교의 맥락에서 본 대행 선사의 예불문 한글번역 작업에 대한 고찰'을,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가 '개인의 삶은 결정되어 있는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중심으로)'를,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가 '한마음의 존재론과 수행론,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한마음에 대한 고찰'을, 소광섭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명예교수가 '상대론적 시공간 언어와 대행 스님 법어'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주일 기자

## 南北 교류, 종교계가 활성화 나선다

KCRP·조종협, 11월 9~10일 금강산서 모임

남북 종교인 200명 모여 화합·통일 방안 논의 예정  
종교별 남북 상봉 모임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가운데 종교계가 남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한국 7대 종교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 회장 자승, 이하 KCRP)는 오는 11월 9~10일 금강산

에서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위원장 장재언, 이하 조종협)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개최한다.

남측에서는 KCRP 회원 종단 대표 150명이, 북측에서는 조종협 대표 50명이 참석한다. 200명의 남북 종교인들이 금강산에서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1년 7대 종교 수장들만이 평양에 방문한 적은 있다.

이번 남북종교인 모임은 남북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며, 남북 대표 1인의 축하연설과 3~4인의 연설, 공동결의문 채택 등이 이뤄진다. 또한 구룡연, 삼일포 공동 등산과 종교 단체별 상봉 모임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KCRP는 "이번 남북종교인모임이 성사되면 8.24 남북합의에 따른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향후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를 촉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동행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우정로 45-13 (수송동) www.hyunbulshop.com

대행스님 법음록  
그냥 무조건이야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참말씀

원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 30년 법음의 향수가 담긴 책

간이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참된 가르침,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대행스님 법음록  
그냥 무조건이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